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북한 이야기

The Irresistible Grace of God - The story of North Korea

JAMIE KIM:제이미김 (교수)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

몇 사람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이 한국 교회의 북한 복음화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방해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행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다. 그동안 김 씨 왕조는 여러 차례 변화를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개혁적 변화를 희망했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는 없었다. 그 동안 북한과 접촉한 사람들은 '기부자 피로(donor fatigue)'를 겪었고,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지쳐서 북한과 관계를 끊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최근의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볼 때, 하나님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북한의 내부에서, 그리

Some people have asked me whether President Moon Jae In's initiatives will aid or impede Christianity's initiative to b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into North Korea.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God's plans and patterns of ac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 a nation that has attempted to eradicate the Christian faith for over 70 years. The Kim dynasty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and each change has been accompanied by hopes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forms, but to no avail. Throughout these years, those who have sought to engage with North Korea have encountered 'donor fatigue' and criticism of the engagement approach, while some of those involved have suffered burnout or left. However, both throughout history and current Christian engagement, God is not absent in North Korea—indeed the display of God's irresistible grace is mani-

고 때때로는 바깥에서 나타났다.[1]

한국에서의 기독교

사실 북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낯설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독교의 부흥, 현대 의학,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 등을 사용하셨다.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1907년에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변화와 이에 따르는 전도활동 등으로 인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다.

의술은 한국이 기독교에 대해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러스 알랜(Horace Allen)은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로 1884년 한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민비의 형제를 치료하게 되었다. 이런 의료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환영을 받았고,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후 알랜은 병원(제중원)과 학교(세브란스 의학교)를 설립하였고, 선교사들은 나라 전체에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 결과 기독교는 293개의 학교와 40개의 대학을 설립했다.

또한 기독교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물론 독립운동은 사회나 종교적 배경을 넘어서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런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탁월했고, 역사는 이를 기억하고 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1919년 일본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19,525명 중 3,371명이 기독교인들이었으며, 489명

fested inside, and at times outside, this nation.[1]

Christianity in Korea

North Korea is in fact no stranger to Christianity. Christian revival, modern medicine, education,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have been used by God to draw this nation to himself. In 1907, Pyongyang, the then capital of Korea, was declared the 'Jerusalem of the East' due to the vigour of its Christian presence and activities.

Medicine played a monumental role in opening Korea to Christianity. Horace Allen, an American medical missionary, arrived in Korea in 1884 and providentially was able to heal the Queen's brother. Through this benevolent work, missionaries were welcomed to Korea, and Christianity received a significant boost. Soon after, Allen was able to establish a medical hospital and a school, and missionaries were then given permission to establish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over the nation; Christians started 293 schools and 40 universities.

Christianity was identified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which helped gain respect and legitimacy. This was a movement of unity which transcended socio-religious backgrounds. However, the role that Christians played was prominent and is recognized in history:

*Out of the 33 Independence Movement Declaration signatories, 16 were Christian.

*According to the Japanese police report in 1919, of the 19,525 persons arrested, 3,371 were Christians and 489 were clergy. Of the

이 성직자들이었고 체포된 여성 471명 중, 309명이 기독교인이었다.[2]

이 수치들은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놀랍게 여겨진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기여들이, 한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여길 수 있는데 대한 신뢰와 합법성을 주었다.

북한에서의 박해

1945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 특히 1970년대에 박해가 매우 심각하였고, 김일성과 정권은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후 1980년대에 이르러 김일성은 빌리 그래함, 문선명,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 등 저명한 종교지도자들을 환영했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종교적 박해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의 사망 후,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그로 인한 러시아 지원의 감소로 굶주림을 겪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절망에 빠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개인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희망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지금도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기독교로서 관계 맺기

471 women arrested, Christians accounted for more than 309.[2]

These figures are impressive considering that Christians amounted to less than 2% of the population at the time. These contributions gave Christianity credibility and legitimacy as a religion of Korea.

Persecution in North Korea

From 1945 until the early 1980s, many Christians we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as the ruling party attempted to eradicate Christianity from the face of North Korea. The persecution and extermination of Christians were so thorough that in the 1970s, Kim Il Sung and the government declared there were no Christians in North Korea. Then in the 1980s, Kim Il Sung welcomed prominent religious leaders such as Billy Graham, Sun Myung Moon, and other Korean pastors, and declared that there was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However, the persecution continued.

After Kim Il Sung's death, many North Koreans went hungry due to the demi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consequent reduction in Russian assistance to the North. Millions of people died of starvation and malnutrition, and out of desperatio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eaded to China in search of food and help.

From personal accounts during this period, we know that many North Koreans came to know the love of God and returned to North Korea with this hope. Thousands of North Koreans became Christians and are now living in North Korea with their personal faith in God. When it was not possible to come to know God's love inside North Korea, many became Christians after coming out to China.

물론 중국처럼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북한과 중국은 매우 다르다.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식민지 정책을 통한 '불공정 조약'과 아편전쟁으로 이해된다. 물론 공산주의의 기본 신념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지만,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진보와 교육, 그리고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관계를 맺을 것을 권고한다.

기독교인들의 존재

1995년 이래로 '월드비전', '사마리아인의 지갑',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메노파(Mennonite) 교회' 같은 70개 이상의 기독교 기관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아래의 정보는 Jiehae Blackman's research에서 제공해 주었다.[3]

-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내에서 일하는 외국 단체들은 48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 70개가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였다.
- 기독교 단체들은 북한의 145개 지역 중 85개의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북한 주민 약 60%가 기독교 단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 기독교 그룹들은 27개 도시 중 23개에서 활동하였다. 활동하지 않는 4개의 도시는 자강도 강계시, 함경북도 김책시, 평안남도 순천시, 함경남도 탄천시이다. 23개의 활동하는 도시들 중에서는, 평양이 19%의 기독교 프로젝트가 진행된 가장 큰 도시이다. 나선은 7%, 원산 6%, 남포 5%, 사리원은 4%의 기독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또한 더욱 많은 일반 기관들도 북한 내의 기독교인들을 채용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기독교 단체들이 주는 진실성과 혜

Engaging as Christian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North Korea, although a Communist country like China, is very different. Christianity does not have the same historically negative associations as it does in China, where it is associated with issues related with colonialism, the 'Unequal Treaties', and the Opium Wars. Although underlying Communist ideology holds that religion is the 'opiate of the masses', Korean history associates Christianity with progress, education, and liberation. As a result, the recommendation is for Christian organizations to engage North Korea transparently as Christian entities.

Christian presence

Since 1995, over 70 Christian organizations and churches such as World Vision, Samaritan's Purse, Christian Friends of Korea, and the Mennonite Church have been welcom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formation below has been provided by Jiehae Blackman's research:3

- From 1995 to 2012, there were about 480 foreign entities working inside North Korea, of which 70 were Christian.
- Christian groups have operated in 85 out of 145 counties in the country, meaning that some 60% have had some exposure to Christian organizations.
- Christian groups have operated in 23 out of the 27 cities. The four cities where they have not operated are: Kanggye city in Jagang province, Kimchaek city in N Hamgyong, Sunchon city in S Phyongan, and Tanchon city in S Hamgyong. Of the 23 cities in which they have operated, Pyongyang is the largest with 19% of all Christian projects. Rason accounts for 7%, Wonsan 6%, Nampho 5%, and Sariwon 4%.
- Moreover, many secular organizations employ Christians inside North Korea.

택 덕분에, 이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환영하기까지 하고 있다. 한 번은 내가 북한에 갔었는데 한 광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당신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는군요."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도움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기독교인들이다. 북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기독교인들이 사랑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사람들이 깨달으면, 기독교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정신은 북한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위대한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속적 그리고 기독교적인 고용을 통해서, 북한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적절한 때에, 주님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의 선의가 북한의 영적인 거룩함을 가져오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코레아(Corea)안에 있는 선교사들, 중국으로 망명 간 노동자들, 북한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있는 외교를 통해서, 이제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인적 만남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북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회는 이 기회를 취할 수도 있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남에서 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이 열리고 있다. 남한의 교회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lerates—and indeed welcomes—Christian organizations because of their integrity and benefit to the nation. In one of my trips, one minder commented to me: 'Many of the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want to take advantage of us, but you (Christians) want to help us.'

Therefore, a disproportionate percentage of people working inside North Korea (as well as with North Koreans outside the country) are Christians. These Christians are engaged in their respective areas because they love God and North Korea. As long as North Koreans perceive that Christians are helping them because of their love for them, Christianity will be viewed as a religion for Korea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In God's sovereignty, Christianity will not leave North Korea alone. Through secular and Christian employment, Christians engage in North Korea to bless this great nation. In God's sovereignty and timing, he will allow Christian goodwill to bring spiritual dividends to the nation in ways we cannot fathom.

The pattern of God's irresistible grace is manifest reaching out to the Koreans through missionaries in Corea, refugee workers in China, and expat workers inside North Korea. Through Moon Jae In's unwavering diplomacy, I now see an opening of dialog and human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church to reach out in compassion and mercy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church can take the opportunity or let it pass, but the door is now opening to go directly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s the church in South Korea ready for such an opportunity?

연합이라는 도전

북한이 외국 투자와 상업 기업 개방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여길게 될 때, 기독교인들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의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협력과 연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불건전한 경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의 분열은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단들을 정통 주류 교단들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정통 기독교인들과 (통일교 같은) 이단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보다 민감한 영역에서 일하든지 또는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경쟁적이거나 별개의 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ㅈ정말로 주님이 우리 단체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적이 북한 주민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잃을 것이 없을 때까지는 연합에 찬성한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된 연합(요 17:23)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사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선입관을 버릴 수 있는가?

존경받는 선교사이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은 애통한다:

어떻게 화해되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법 아래에서 함

The challenge of unity

Christian unity will be one of the major challenges as North Korea opens up to foreign investment and commercial enterprises, one of its key policies. Throughout recent history, Christians have not done well in exhibiting cooperation and unity. Christian divisions, manifested in unhealthy competition, make it difficult for the world to grasp the gospel message clearly and differentiate cults from legitimate mainstream denominations.

Unless Christians give priority to unity there, it will be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differentiate cults working there (such as the Moonies) from orthodox Christians. Whether we are operating in more sensitive areas or working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North Koreans inside, it is imperative that we unite as the body of Christ. We are not engaged in competing or disparate enterprises. If Jesus is Lord of our organization and our purpose is to bless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n we need to proclaim one unified message of God's love.

Theoretically, all Christians stand for unity until they or their organizations have something to lose. However, in order for true unity that will win the world to Christ (John 17:23) to be established, sacrifi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e equation. Are we willing to let go of our preconceived ways in order to receive a new thing (Isaiah 43:19) that God desires to do in and through the church?

Lesslie Newbigin, a respected missionary and theologian, laments:

How can we, unreconciled to one another, proclaim one reconciliation for the world? How can we be heralds of the one Lord, calling all men to accept

께 살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뉴비긴 1959: 55)

우리의 화합과 우리의 하나 됨을 통하여 북한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요 17:23).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1. 《로잔 세계적 분석(Lausanne Global Analysis)》, 2013년 9월호 "북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God at Work in North Korea)"의 편집자 주 참고.
2. 김성태, "3.1운동에서 종교인의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 25 (1989): 17-24. Timothy Lee (아래 참고문헌목록 참고), 451.
3. The foreign engagement map has been a brain child of Jiehae Blackman and lists many of the foreign entities which have been engaged with North Korea. It can be located at http://www.engagedprk.org/.

His Lordship, when we cannot ourselves live together under His one rule? (Newbigin 1959: 55)

May we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so that the North Koreans will know (John 17:23). Soli Deo gloria!

출처_https://blog.naver.com/kjtyulo/220832808170